

강원도는 지형적으로 산세가 험해 교통발달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의료 혜택이 채 미치지 못한 곳이 많다. 이에 강원지부 복잡자의원은 강원도 내 전 보건소와 손잡고 취약 지구를 직접 찾아가는 순회 진료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단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떻게 하면 결핵퇴치를 함께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석을 이곳 강원지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건세계]는 강원지부를 찾아 그들의 패기 넘치는 사명감을 직접 담아보고자 했다.



대한결핵협회 강원지부, 지자체와 지역 단체가 손잡고 지역 결핵 퇴치에 발 벗고 나서

글_ 박영목(본부 홍보기금과)

개개인에게 결핵은 어떤 의미인가? 어디서 한 번쯤 들 어본 질병, 크리스마스 설을 떠오르게 하는 질병, 내 주변 누군가가 앓게 된다면 한 번쯤 뒤돌아보게 될, 그러나 어쩌면 평생 동안 나와 별 상관없는지도 모르는 질병, 이것이 결핵의 현 주소다. 그러나 국가결핵관리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3~4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매년 2천 명이상이 사망하는 질병이 바로 결핵이다. 전체 감염성 질환 중 발병 및 사망 모두 1위를 차지하는 질병이다.

대한결핵협회 강원지부는 지자체와 지역 단체가 어떻게 결핵퇴치를 함께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지부는 국가결핵퇴치사업의 핵심인 이동검진을 통한 환자발견을 하고, 복잡자의원에서 판독과 환자 진료가 윈스톱으로 이루어진다.

강원지부 복잡자의원 유남수 원장은 강원도 결핵관리 의사를 겸직하며, 매주 금요일 강원도 내 전 보건소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지부 김정희 본부장

“강원도는 지형적으로 산간지역이 많고 이동 거리가 멀어 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동검진을 통해 결핵발견사업은 물론 도민 건강까지 챙기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강원도 내 모든 결핵퇴치 사업은 도청과 협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인 결핵환자는 각 지역 보건소가 관리하고, 복잡자의원은 내성 환자 위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형적으로 산악지대가 많고, 이동거리가 멀어 의료혜택이 취약한 형편이다. 특히 대중교통이 잘 닿지 않는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은 몸도 힘들고, 거리도 멀어 병원 한 번 가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소외계층과 노인들까지 관내 구석구석 찾아가는 이동검진 사업은 강원도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의료 혜택임을 알기 때문에, 강원지부 직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지난 해 7월, 강원지부는 큰 결정을 해야 했다. 그동안 강원도 복잡자의원을 맡아온 국경 원장의 퇴직과 그 뒤를 이을 후임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결핵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복잡자의원장과 강원도 결핵관리역사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로 쉽지 않았다. 그리고 운명처럼 유남수 원장을 만났다.

국립의료원에서 일평생 결핵환자를 진료해온 유남수 원



복잡자의원 유남수 원장과 최현정 사원



사업과 김영환 과장, 이기준 주임, 강석환 직원

장을 삼고초려 끝에 강원지부 복잡자의원장으로 초빙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만만치 않은 출퇴근 거리, 매주 금요일 강원도 내 18개 시·군 보건소 순회진료, 하루 200건에 달하는 사진 판독 등 쉽지 않은 업무를 수락하기까지 유 원장의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평생 해온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국가결핵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인적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서 강원지부 결핵사업은 다시 한번 활기를 띄고 있다. 강원도청과 머리를 맞대고 결핵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결과가 나오다 보니 힘들어도 신나게 일한다는 것이 강원지부 직원들의 말이다. 현재 도와 함께 구상중인 사업이 화상진료이다. 강원도는 지형적 여건이 도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시군 보건소를 이용하는 결핵환자가 보건소 한 번 나오기도 힘들거니와, 의사가 순회 진료를 통해 18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는 횟수는 한 보건소 당 1년에 네 번. 때문에 화상진료가 절실하게 필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강원도는 전 보건소에 팩스(pac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시작만 된다면 사업은 순항할 듯 보인다. †